

CBMC

김해한마음지회 토요조찬포럼

성경공부 자료

갈라디아서 1:6-10 · 창세기 5:21-27

이번 주 주제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 에녹의 365년이 우리에게 묻는 것

날짜	2025년 2월 8일 (토) 오전 7:00
장소	반석인더스트리즈(주) — 경남 김해시 장유로 167-23
강사	서재찬 박사 (반석인더스트리즈 대표)
제작	엘림G선교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 로마서 1:16

제1부 갈라디아서 1:6-10

"다른 복음은 없나니" — 바울의 경고

본문 (개역개정)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the one who called you to live in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which is really no gospel at all. Evidently some people are throwing you into confusion and are trying to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8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a gospel other than the one we preached to you, let them be under God's curse!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As we have already said, so now I say again: If anybody is preaching to you a gospel other than what you accepted, let them be under God's curse!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아직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human beings,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people?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people,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역사적 배경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한 후,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것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선언은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 분석

키워드	헬라어	의미	비즈니스 적용
다른 복음 (heteron)	τέρον heteron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은 종류가 아닌)	시장에서 "진짜 가치"와 "겉보기 가치"의 차이
교란하다 (tarassontes)	ταρασσόντες tarassontes	뒤집다, 혼란시키다 (물을 흐리게 하다)	조직 안에서 핵심 가치를 흔드는 목소리들
저주 (anathema)	ἀθέμα anathema	영원히 분리됨 (하나님에게서 끊어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업 방향의 위험
종 (doulos)	δοῦλος doulos	자발적 종, 헌신된 자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비즈니스의 궁극적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

영적 통찰

- 복음의 유일성 (6-7절) — 은혜 + 행위 = 복음 왜곡.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성공의 근거를 인간의 능력에만 두면 본질을 잃습니다.
- 복음의 권위 (8-9절) —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입니다. 이는 복음이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선언합니다.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복음의 자유 (10절) —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선언은 비즈니스맨에게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는가?

두 전환점의 만남 — 바울의 다메섹과 에녹의 므두셀라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과 창세기의 에녹 — 수천 년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두 사람의 삶에는 놀랍도록 동일한 구조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의 결정적 사건을 통해 삶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바울 (사울→바울)	에녹
전환 전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함 (갈 1:13) "유대교에서 지극히 앞섬"	65년간 평범하게 살았음 창세기 5장 패턴과 동일 "살았더라"의 삶
전환점 사건	다메섹 도상의 빛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남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행 9:4)	므두셀라의 탄생 심판의 계시를 받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므두셀라 이름의 의미)
전환의 본질	계시 —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심 (갈 1:16) 인간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계시 — 아들의 탄생을 통해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깨달음 인간의 깨달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열어주심
전환 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의 삶 (갈 1:16) 이전의 모든 것이 "배설물" (빌 3:8)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의 동행 (창 5:22)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 죽음을 초월한 생명
비즈니스 적용	사업의 목적이 완전히 재정의된 순간이 있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가?"	사업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전환점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업인가?"

핵심 통찰: 전환의 공통 구조

공통 구조: 계시 → 전환 → 동행/사명

바울의 다메섹과 에녹의 므두셀라는 같은 패턴입니다. 둘 다 인간이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사"(갈 1:15-16)라 했고, 에녹은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맨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 나의 전환은 내가 만든 것인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인가?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었고, 에녹에게 므두셀라가 있었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환 이후, 당신은 바울처럼 사명을 살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제2부 창세기 5:21-27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 에녹의 365년

본문 (개역개정)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When Enoch had lived 65 years,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23 그가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Altogether, Enoch lived a total of 365 years.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then he was no more, because God took him away.

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When Methuselah had lived 187 years, he became the father of Lamech.

26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Lamech, Methuselah lived 782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27 그가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Altogether, Methuselah lived a total of 969 years, and then he died.

핵심 포인트: 므두셀라의 탄생 – 에녹의 삶을 바꾼 전환점

21절: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은 에녹의 삶을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로 나눕니다. 65년간 에녹은 평범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다른 인물들처럼 단지 "살았더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은 그 순간, 에녹의 삶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왜 무두셀라의 탄생이 전환점이었는가?

- 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 — 히브리어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또는 "창을 던지는 자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녹은 아들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969세)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새겼고,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 ② 아버지 됨이 열어준 영적 눈 — 자녀를 낳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넘어선 책임을 만납니다. 에녹에게 무두셀라의 탄생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절박한 계시 앞에서, 에녹은 자녀의 미래와 세상의 운명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이 무게 앞에서 에녹이 선택한 것은 —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 ③ 심판의 계시가 은혜의 동행으로 — 무두셀라의 969년은 성경 최장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심판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 심판의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께서라는 것. 그래서 에녹은 두려움으로 도망가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의 전(前) 65년	→	전환점	→	에녹의 후(後) 300년
"살았더라" (평범한 삶) 하나님 없는 일상 창5장 패턴과 동일		무두셀라의 탄생 = 심판의 계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과 동행" (전혀 다른 삶) 매일의 동행 죽음을 초월한 생명

에녹과 무두셀라 비교

	에녹 (Enoch)	무두셀라 (Methuselah)
수명	365년	969년 (성경 최장수)
삶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	죽었더라 (반복 패턴)
결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심)	"죽었더라" (홍수의 해에 사망)
이름의 의미	봉헌된 자, 가르치는 자 ()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
영적 의미	질(質) —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양(量) —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
비즈니스 적용	사업의 방향성과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오래 살아남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가?

영적 통찰

1. 전환점의 신학 — 므두셀라 이전과 이후 — 에녹은 65년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므두셀라의 탄생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름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에녹으로 하여금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깨닫게 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의 삶에서도 이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 사업 실패, 건강 위기, 자녀의 탄생 등. 문제는 그 순간에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입니다.
2. "동행"의 의미 (히브리어: περιπατέομαι) — 히트할레크는 "함께 걸어가다"를 뜻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일상을 살면서 동행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터사역자에게 가장 강력한 모델입니다.
3. 365년의 상징 — 하루도 빠짐없이 — 에녹의 수명 365년은 1년의 날 수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녹의 삶 전체가 매일매일의 동행으로 채워진 완전한 한 해의 은유입니다.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죽음의 패턴을 깨뜨린 삶 — 창세기 5장은 "죽었더라"의 반복입니다. 아담: 죽었더라. 셋: 죽었더라. 에노스: 죽었더라. 그러나 에녹만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히 11:5). 하나님과의 동행이 죽음의 법칙을 초월하는 생명의 길임을 증언합니다. 므두셀라의 탄생으로 시작된 300년의 동행이, 결국 죽음마저 이긴 것입니다.
5. 비즈니스マン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 — 에녹에게 므두셀라가 있었다면,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사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그 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환 이후,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므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지만 "죽었더라"입니다. 에녹은 365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업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업했느냐가 영원을 결정합니다.

제3부 므두셀라 969년 —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심판을 선언하시되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 969년. 이것은 신학적으로 가장 깊은 역설 중 하나입니다.

무두셀라 생애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사건	연대 (창세기 5장 기준)	신학적 의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음	에녹 65세 (세계 창조 후 687년)	심판의 계시가 주어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 하나님께 옮겨감	에녹 365세 무두셀라 300세	동행의 완성 계시를 받은 아버지의 승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음	무두셀라 187세	심판까지 782년 남음 하나님의 인내가 계속됨
라멕이 노아를 낳음	무두셀라 369세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창 5:29) 구원 계획이 진행됨
노아에게 방주 명령	무두셀라 약 869세 (추정)	심판 100년 전 경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무두셀라 사망	무두셀라 969세 (세계 창조 후 1656년)	사망 그 해에 홍수 시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

심화 통찰: 969년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1. 969년 =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길이 — 베드로후서 3:9은 "주께서 약속을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증언합니다. 무두셀라의 969년은 이 말씀의 구약적 실현입니다. 심판은 확정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가능한 한 가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 심판의 확실성 속의 은혜의 확실성 —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 홍수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969년이라는 유례없는 수명은 하나님이 심판보다 구원을 더 원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지, 첫 번째 선택이 아닙니다.
3. 에녹 → 무두셀라 → 라멕 → 노아: 은혜의 계보 — 이 계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에녹(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아들 무두셀라(심판의 예고)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아들을 "노아(위로)"라 지었습니다(창 5:29). 심판의 계시 속에서도 위로의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동시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 비즈니스 적용 — "나의 969년" — 사업에서 위기의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969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급한 판단 대신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동시에, 무두셀라의 죽음과 함께 반드시 홍수가 왔듯이, 인내의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에서 방주란, 하나님의 원칙 위에 세운 사업 구조입니다.

무두셀라 공식

심판의 확실성 + 은혜의 오래 참으심 = 회개의 기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969년 살게 하셨다

그러나 므두셀라도 결국 죽었고, 흥수는 반드시 왔다

제4부 소그룹 나눔 질문

테이블별로 아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질문 1

바울이 경고하는 "다른 복음"은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의 사업 결정에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볼 점: 성과주의, 번영신학, 인맥 의존, 세속적 성공 기준 등

질문 2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의 므두셀라" — 즉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환 이후, 나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점: 사업 위기, 자녀 탄생, 건강 문제, 은혜의 체험 등 삶의 방향이 바뀐 결정적 순간

질문 3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갈 1:10)고 선언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생각해 볼 점: 거래처 접대, 직원 관리, 세금 문제, 경쟁 방식 등에서의 타협과 신앙

심화 질문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

4. 므두셀라(969년)와 에녹(365년) — 하나님 앞에서 "긴 사업 경력"과 "하나님과 동행한 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5.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한 가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제5부 삶의 적용

이번 주 나의 일터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영역	본문의 가르침	나의 적용
사업 방향	진짜 복음 = 은혜 중심 (갈 1:6)	
의사 결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갈 1:10)	
일상 동행	매일 하나님과 동행 (창 5:22)	
관계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	

합심 기도

기도제목 1 — 회원 기업의 협통

각 회원의 기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통하게 하시고, 일터가 곧 사역지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지혜와 돌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제목 2 — 가정의 평안과 자녀 축복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사랑과 존경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제목 3 — 지회 부흥과 글로컬 사역 확장

토요조찬포럼이 더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주민 사역과 글로컬 브릿지 사역이 18개국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CBMC를 통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

"예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창세기 5:24

CBMC 김해한마음지회 | cbmc-gimhae.netlify.app |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부록

CBMC 간증 시리즈 공통 질문

"나의 므두셀라는 무엇입니까?"

— 삶의 전환점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비즈니스맨의 이야기

에녹에게 므두셀라의 탄생이 있었고, 바울에게 다메섹의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CBMC 김해한마음지회는 이 질문을 간증 시리즈의 공통 프레임워크로 채택합니다.

CBMC 간증 프레임워크: "나의 민족셀라"

단계	질문	시간	핵심
1단계 Before (전환 전)	<p>나의 "모두셀라 이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p> <p>예녹의 첫 65년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시간을 나눕니다.</p>	1분	사업/삶의 배경 세속적 가치관 "살았더라"의 시기
2단계 Turning Point (전환점)	<p>나의 "모두셀라"는 무엇이었습니까?</p> <p>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그 사건, 하나님의 개입을 나눕니다.</p>	1분	위기/은혜의 순간 하나님의 계시 바울의 다매색과 같은 결정적 사건
3단계 After (전환 후)	<p>그 전환 이후, 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p> <p>예녹의 300년 동행처럼,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눕니다.</p>	1분	하나님과의 동행 사업 방식의 변화 관계의 변화 가치관의 전환

나의 간증 메모 – "나의 민두셀라"

Before — 나의 "므두셀라 이전"
Turning Point — 나의 "므두셀라" (삶을 바꾼 전환점)
After — 전환 이후 달라진 나의 동행

CBMC 김해한마음지회 간증 시리즈 활용 안내

활용 방법

1. 매주 토요조찬포럼 — 3분 간증 시간에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2. 신규 회원 환영 — 새로운 회원에게 "나의 므두셀라" 질문을 통해 신앙 여정을 나눕니다.
3. 소그룹 나눔 — 테이블별 소그룹에서 전환점을 나누며 서로를 세웁니다.
4. 간증 아카이브 — 매주 작성된 간증을 축적하여 김해한마음지회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5. 글로컬 사역 연결 — 이주민 사역자들에게도 "나의 므두셀라" 간증을 나누어, 다국어 간증 시리즈를 구축합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었고, 에녹에게 므두셀라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꾼 그 순간 — 그것이 당신의 므두셀라입니다.

그 전환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CBMC 김해한마음지회 · 엘림G선교회 · 글로컬브릿지연구소